



로슈社, AIDS 치료제 후진국한해 생산원가에 판매키로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는 14일 후천성 면역성 결핍증(AIDS) 치료제를 후진국에 한해 생산원가에 판매키로 결정했다. 로슈는 이날 후진국에서 판매되는 AIDS 치료제 비라셉트(Viracept)와 인비라스(Invirase)의 가격을 85%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로슈는 후진국 에이즈 환자들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기본 치료제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라셉트와 인비라스의 한달 치료제 가격은 61개 후진국에 한해 현행 5백61 스위스프랑에서 90 스위스프랑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 바젤에 본사를 두고있는 로슈는 후진국에 AIDS 치료제를 너무 비싸게 판매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국경제신문 2003-02-16]

HIV 증식 억제하는 바이러스 있다

최근 발견된 'GB바이러스-C'(GBV-C)라고 불리는 무해한 바이러스가 에이즈 바이러스(HIV)가 혈액세포를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아이오와대학의 잭 스타플턴 박사는 13일 보스턴에서 열린 제10차 레트로바이러스-기회감염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HIV가 세포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화학적인 '도킹 관문' 3개 중 하나를 GBV-C가 막아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히고 이 바이러스를 지닌 에이즈 환자가 이 바이러스가 없는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크게 낮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의 캐럴라인 윌리엄스 박사가 1985년 HIV에 감염된 남성환자 271명을 대상으로 11년에 걸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 중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GBV-C에 감염된 환자가 75%, 이 바이러스에 한번도 감염된 적이 없는 환자는 39%,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바이러스가 소멸된 환자는 16%로 각각 나타났다.

HIV는 혈액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런 해가 없지만 일단 혈액세포로 침투하면 세포 자체의 시스템을

장악해 HIV 세포를 증식함으로써 혈액세포는 죽어버리게 된다. HIV는 혈액세포로 들어가기 위해 세포표면에 있는 3개의 관문을 이용하는데 에이즈 환자가 GBV-C에 이미 감염되어 있으면 이 3개의 관문 중 하나인 CCR-5가 차단되어 HIV가 쉽게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GBV-C는 1995년에 발견되었으며 처음에는 간염 바이러스로 잘못 생각돼 간염-G바이러스라고 불렸다. 그러나 지금은 이 바이러스가 C형 간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질병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BV-C는 HIV처럼 혈액의 접촉이나 성행위를 통해 감염되며 해가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헌혈 때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혈자의 1-2%, HIV 감염자의 약 40%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2003-02-14]

간염치료제 인터페론, HIV 증식 억제

C형 간염 치료에 쓰이는 장시간 작용형 인터페론인 페그인트론(PegIntron)이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 보훔에 있는 루르대학의 노르베르트 브로크마이어 박사는 보스턴에서 열린 제10차 레트로 바이러스-기회감염(機會感染)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페그인트론이 HIV의 활동량을 800% 이상 떨어뜨리는 한편 면역체계 활동 강도의 척도가 되는 CD-4 세포의 수를 30%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실험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페그인트론은 매일 주사해야 하는 보통 인터페론과는 달리 1주일 한 번의 주사로 장시간 작용하기 때문에 C형 간염 치료에 돌파구를 열어 준 약이다.

브로크마이어 박사는 HIV에 감염된 후 아직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감염초기 환자 10명(남자 8명, 여자 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남자 5명)에게만 매주 페그인트론을 6개월 주사했다. 그 결과 페그인트론 그룹은 CD-4 세포의 수가 임상실험 시작 전의 평균 462개에서 611개로 늘고 비교그룹은 535개에서 450개로 줄었다.

또 혈액을 타고 도는 HIV 유전물질의 양은 페그인트론 그룹이 임상실험 시작 전의 ml 당 2만2천158개에서 3천 39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비교그룹은 7천136개에서 4만 92개로 크게 늘어났다. 브로크마이어 박사는 페그인트론 그룹은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예상 밖의 결과라고 말했다. 인터페론은 부작용으로 심한 두통, 독감과 비슷한 증세, 피로, 우울증을 수반하며 페그인트론도 마찬가지로 1주일에 한 번 주사하기 때문에 환자는 그만큼 부작용에 덜 시달리게 된다.

미국 콜로라도대학 메디컬 센터의 로버트 스쿨리 박사는 부작용이 별로 없었던 것은 투여량이 표준단위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브로크마이어 박사는 현재보다 많은 HIV 감염환자들을 대상으로 표준치료제와 페그인트론을 병행투여하는 임상실험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3-02-13]

바르는 에이즈예방제 나온다

콘돔을 대신하는 바르는 에이즈 감염 방지제가 실용화할 전망이다. 영국 BBC 방송은 10일 미국과 영국 과학자들이 여성용 에이즈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액체 형태의 에이즈 방지 화학물질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로바이사이드(microbicide · 미생물살충제)로 불리는 이 물질은 에이즈 바이러스를 비롯한 미생물을 죽이는 기능을 갖고 있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의 전염을 차단하고 신체 저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 물질은 얇은 필름이나 거품 형태로 만들어 성행위 전 여성이 성기에 발라 사용하게 된다. BBC는 콘돔 사용을 기피하는 남성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 여성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2003-02-11]

에이즈 퇴치기금 '부도직전' ~ FT보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에이즈 퇴치 지원을 위한 국제 기금의 재원이 부국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유엔의 후원으로 개도국 에이즈 퇴치에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는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은 지난 1년간 21억달러의 기금 대부분을 집행, 현재 재원이 거의 소진된 상태다. 리처드 피첨 세계기금 사무총장은 "향후 2년간 지원사업에만 63억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라며 "부국들의 지원이 없으면 기금이 활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정연설을 통해 향후 5년간 1백50억달러의 에이즈 퇴치 기금 출연 의사를 밝힌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이 돈의 10%만 세계기금에 출연할 방침이어서 에이즈 퇴치운동 단체들로부터 '일방주의적 접근'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대규모 에이즈 퇴치 프로그램을 집행할 인프라를 갖고 있지 못한 부국들이 제각각 에이즈 퇴치 사업에 나설 경우 개도국들이 관료주의의 늪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특히 미국은 토미 톰슨 미 보건장관을 세계기금의 새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 다자주의적 기구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파울 자이츠 세계 에이즈연맹 이사는 "부시 행정부가 세계기금을 부도 직전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향신문 2003-02-06]

화대' 만 연 24조원

여성부가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01년 한해동안 매매춘으로 오고간 돈이 연 24조원에 이르며, 이는 같은 해 농어업총생산규모와 맞먹는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24조원은 매매춘 업소에 등록되어 전업으로 매매춘에 종사하는 33만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로 유사 매매춘업소나 겸업매매춘업소 윤락알선업소를 통해 발생하는 매매춘까지 포함하면 매매춘의 경제규모는 이보다 두배 혹은 세배까지 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1998년 여성개발원의 조사에선 매매춘 종사 여성이 100만명이며 15~39세 가임여성의 10%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온 바 있고 검찰과 경찰은 1백50만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매매춘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들 가운데 많은 수는 매매춘을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보고 있으며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왜 개입하는지 논란도 있다. 결국 사회적으로 매매춘이 범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나 관계기관들도 미성년자 상대의 매매춘과 감금상태의 노예매매춘에만 단속의 손길을 뻗히고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의 법과 현실 사이의 이러한 괴리가 단속을 느슨하게 만들어 어디서든 쉽게 매매춘이 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매매춘은 남성의 성적 욕구와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인식과 구조, 이러한 잘못된 성문화에 길들여진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법으로 금지된 매매춘의 경제규모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것은 법이 있되 그것을 범법행위로 다스리려는 당국의 의지가 없는 탓이다. 불법적인 매매춘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사회전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가 불법적인 매매춘을 근절하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 [한겨레 2003-02-06]

印尼 바탐 AIDS 확산 진원지로 부상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예정지 바탐이 전국에서 몰려온 율락녀들이 급증하면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확산의 진원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싱가포르에서 뱃길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바탐에서 AIDS 감염자가 급증한 것은 율락 여성들이 외국인 투자자 및 관광객 등과 성관계를 가질 때 콘돔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 때문이다. 바탐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002년 현재 AIDS 및 AIDS바이러스(HIV) 감염자는 112명에 달하고 20명이 AIDS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신고된 감염자가 공식집계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탐은 지난 2000년부터 외국인 투자 행렬이 이어지자 일자리를 얻으려는 여성들이 전국에서 몰려들면서 율락산업이 번창했으며, 전체 율락녀는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바탐에는 최근 2년 동안 율락을 알선하는 가라오케와 마사지 가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주요객은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투자자들과 수천명에 달하는 외지인들이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바탐에서 성접촉으로 인한 AIDS 감염이 급증하자 10만달러 상당의 콘돔을 구입, 항구와 병원 등지에서 공짜로 나눠주고 있으나 율락녀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AIDS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카르타 포스트의 현지 취재 결과 상당수 율락녀들이 1박스당 1만5천루피아(2천원)인 콘돔 경비를 아끼기 위해 고객들과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부기구(NGO)인 가족건강동반자재단(YMKK)의 에비아노라 아즈와로 간사는 "HIV가 현재 추세대로 확산된다면 바탐은 서부 인도네시아 전역의 HIV 감염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2003-02-03]

남아시아 에이즈 감염자 420만명

약 420만명의 남아시아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유엔 보건 관리들이 밝혔다. 남아시아 8개국과 유엔 보건 관계자들은 이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아들에 걸친 회의를 시작하며 이같이 말하고 교육부족과 여성과 어린이 매매가 에이즈 확산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캐럴 밸러미 유엔아동기금(UNICEF)사무국장은 그중에는 신규 감염자의 대략 절반을 차지하는 젊은이 100만명의 숫자도 포함돼 있다면서 젊은 여성 감염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밸러미 국장은 젊은이들이 HIV(에이즈 바이러스)와 예방에 관한 정보로 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3-02-03]

베트남, 값싼 에이즈치료제 양산 돌입

수입약 값의 15%에 불과한 싼 에이즈 치료제가 베트남에서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의 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 환자들에게 값싼 치료제를 제



공하기 위해 이 약을 개발한 MST 제약회사는 지난해 말 독일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쿠웅주이제약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노이 종합전시장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쿠웅주이 제약은 지난해 5월 처음시판에 들어간 에이즈치료제 '람 지디비르'를 수요자들에게 충분하고 값싸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사중 판매가는 국제가격의 15%에도 못미치는 1만9천600동(약 1천700원)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이 자체 개발한 이 약은 라미부딘 150mg과 지보부딘 300mg을 함유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에이즈 환자가 약 6만명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실제환자 수는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3-02-03]

콘돔 멀리하면 에이즈 감염위험 1만배?

'안전한 섹스'를 위한 콘돔사용법에 대해 모르거나 무시하는 젊은 남녀들이 여전히 많다. 미국 시애틀의 건강단체조합(GHC)의 역학연구자인 디안 시빅 박사는 섹스할 때 콘돔을 사용하는 18~24세의 미혼 여성 7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첫 섹스 후 콘돔을 사용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는 여성이 44%나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던 3개월 동안에 각종 성병을 일으키는 균과, 정자(精子)에 노출됐다. 또 5명 중 1명은 콘돔이 벗겨지거나 찢어졌다. 시빅 박사는 '10명 중 6명은 삽입한 뒤에야 콘돔을 착용할 정도로 피임에 대한 상식이 없다'며 '삽입하는 순간에도 남성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정자와 각종 균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콘돔을 제대로 사용하면 98%의 피임효과가 있고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PV)나 에이즈 바이러스(HIV)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배우자가 HIV 보균자인 124쌍의 커플이 약 20개월 동안 콘돔을 착용한 채 성생활을 가진 결과 파트너가 HIV에 감염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콘돔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100명 중 10명이, 콘돔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100명 중 15명이 HIV에 감염됐다. 미국 '성병감염질학' 저널지에 따르면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콘돔을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 HIV에 감염될 위험이 1만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일보 2003-01-26]

베트남 HIV실제보균자 6만명 넘어

베트남의 HIV(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보균자가 공식적인 수만도 6만명을 넘어섰다. 베트남 보건부는 21일 베트남의 HIV보균자가 지난해 1만2천명이 늘어나 전체로 6만명에 이르렀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건부는 이들 보균자들 중 8천450명은 에이즈가 발병된 상태이며 4천650명은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수치일 뿐 실제로 보균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보건부의 한 관계자는 비공식집계로 HIV보균자는 16만명에 이르며 연말까지 그 수는 17만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균자의 20%는 경제대도시 호치민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3-01-21]

경기도청 홈페이지 '에이즈 예방' 코너 마련

경기도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도청 홈페이지(www.kg21.net)에 에이즈 예방 코너를 마련, 운영한다. 이 코너에는 ▲에이즈의 정의와 발견 ▲HIV(항체 양성자 또는 보균자)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 ▲에이즈의 발병단계 및 특성과 전파경로, 감염경로, 감염기간 ▲HIV검사법 ▲검진대상 및 주기 ▲치료제 투약 및 진료비 지원 ▲에이즈 감염의 임상증상, 치료 ▲에이즈에 대한 상식 ▲에이즈 연계 진료기관 현황 등이 자세히 게재되어있다.

접속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복지경기 → 의약정보 → 에이즈를 클릭하면 된다.(문의 : ☎ 031)249-4355)

[연합뉴스 2002-12-20]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2002년 12월)

정회원	10만원	신수린	15만원	김동현	2만원
박상원	1만원	정장수	5만원		
함계	33만원				